

# 金屬工藝의 鏤金細工技法 研究

- 고신라 고분출토품을 중심으로 -

李 榮 姬\*

— 차 례 —

I. 머리말	1. 鏤金細工 遺物の 造形의 特徵
II. 鏤金細工技法의 概念 및 工程	2. 鏤金法の 傳來와 衰退
III. 鏤金細工技法의 起源과 傳來	3. 鏤金法과 中國以西美術과의
IV. 古新羅 鏤金細工 遺物の 造形 과 鏤金法	관계 V. 맺음말

## I. 머리말

韓國 古代 金屬工藝品 中에는 鏤金細工技法(鏤金法)의 遺物이 多數 現存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금법은 韓國 古代美術에 나타난 外來의인 要素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며,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遺物을 念함에 있어서 자주 古新羅 美術의 特殊性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본 논문은 金屬工藝의 鏤金細工技法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여 누금법이란 金屬工藝의 어떤 기법인지, 그 起源은 어디에 있으며, 나아가 高신라 美術의 特色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는지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金屬工藝 기법에 관한 연구<sup>1)</sup>이자, 삼국시대 고분출토

\*서울여자대학교 · 예술종합학교 강사

1) 金屬工藝의 기법연구는 양식사적 방법과 함께 金屬工藝의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기술의 새로운 출현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문화의 전파를 암시하기 때문에, 工藝사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나 신기술의 출현시기 등은 중요한 고찰 대상이 된다. 특히 누금법은 東·西洋의 金屬工藝에 사용된 세공(장식)기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일찍이 濱田耕作과 같은 연구자는 高신라 고분출토품의 누금법에 대해 銳意 注視하였고, 그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濱田耕作, 「細金細工に就いて」, 『史林』, 7卷 4號(京都大學文學部, 1926), pp. 23~35.

공예품에 대한 해석방법<sup>2)</sup>이며, 나아가 한국 고대미술의 '根源'<sup>3)</sup>을 밝히는 작업이라는 점에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누금세공기법의 개념과 제작공정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고신라 누금법의 기원과 전래과정에 대한 사전 조사로써 누금법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떤 과정으로 동서 금속공예의 장식기법으로 성행하였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다음 고신라 누금법의 현존유물을 조사하여 조형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고신라 금속공예에서 차지하는 누금법의 중요성을 밝힐 것이다. 그리하여 고신라 공예품의 장식기법으로 사용된 누금법은 고신라 미술에 내재되어 있는 외래적인 요소의 하나이며, 고신라 미술과 中國以西地域과의 친연성을 암시하는 하나의 단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鏤金細工技法의 概念 및 工程

鏤金細工技法이란 金絲로 대표되는 金屬線(絲)으로 문양을 형성하여 금속 표면에 붙여서 장식하는 'Filigree' (細線細工·金絲法)와 金粒으로 대표되는 금속 알갱이(粒)을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을 구하는 'Granulation' (細粒細工·金粒法)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Filigree'로 정의된다.

'Filigree'와 'Granulation'은 개념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며,<sup>4)</sup> 흔히 주요 문양이 선으로 꾸며지면 'Filigree'라 하고 알갱이 장식이 뚜렷하고 소수의 선만 있을 경우에는 'Granulation'이라 한다. 이 두 기법은 細線과 細粒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원리는 동일하며, 보통 세선으로 꾸민 후 세립으로 더욱 풍부하게 장식하므로 현대에는 엄밀하게 구별하기보다는 'Filigree'의 개념 속에 'Granulation'의 개념을 포함시킨다. 또한 이 두 기법은 주로 金細工에 많이 사용되므로, 가는 금실이나 금 알갱이로 장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 삼국시대의 고분출토품에 대한 연구는 考古學的 發掘 성과에 비해서 美學的 考察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자공예와 불교공예 중심의 연구에 치중된 학계의 연구동향으로 인하여 고고학과 미술사학의 死角地帶로 존재하여 왔다.

3) 韓國美術史 研究에서 미술품의 '根源'을 밝히는 작업은 미술사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역사적 기록이 희소한 古代美術史에서는 미술품의 근원규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4) 'Filigree' (佛: Filigrane, 伊: Filigrana)는 라틴어로 실을 뜻하는 'Filum' (絲)과 알갱이를 의미하는 'Granum' (粒)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용어로 금속공예 장식기법의 하나이다. 'Granulation'은 금속 알갱이(Granules)의 생산을 의미하였으나, 細粒의 금속 알갱이를 금속의 표면에 접착시켜 선의 형태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드는 장식기법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濱田耕作, 위의 논문(1926), p. 23; Wladyslaw, Duczko, *The Filigree and Granulation Work of the Viking Period* (Stockholm Sweden, 1985), p. 15; Christiane, Eluere, *Secrets of Ancient Gold*, Trio(1989), p. 200

통칭 鑲金細工技法(鑲金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누금법은 金으로 대표되는 금속의 可伸性을 이용하여 微粒子나 細線을 만들어 이것을 금속표면에 장식하여 무늬를 표현하는 세공기법이므로<表 1>, 누금법의 공정은 금사와 금립을 제작하여 금속의 표면에 정착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表 1> 金屬工藝 技法分類

成型 技法	鑄造(鑄金)(Casting)	
	鍛造(Hammering, Forging) · 鎚起(Raising)	
細工 (裝飾)	彫金(Engraving)	線彫(Line-Carving)
		印刻
		透彫(透刻, Open-work)
	浮彫(Relief)	打出(Repousse)
壓出(Chasing)		
技法	鍍金(Gilding)	
	入絲(Inlay)	
	鑲金細工(Filigree)	細線細工(Filigree)
		細粒細工(Granulation)

누금법에 사용되는 금사에는 보편적으로 장식 없는 선(絲)(Plain-wire)과 구슬선(絲)(Beaded-wire)으로 나누어진다(圖 1). 金絲는 金의 늘어나는 성질(延性)과 퍼지는 성질(展性)을 이용하여 고대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sup>5)</sup>, 금사 위에 타원형이나 구형 등 매우 작은 구슬모양을 만든 것을 구슬선이라 한다.<sup>6)</sup> 구슬선은 가는 金粒子로 장식하는

5) 金은 아름다운 색깔과 함께 稀貴性, 耐久性, 展延性 및 均質性 등의 특성으로 銅과 함께 금속공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金은 延性(ductility)과 展性(malleability)이 다른 금속보다 우수하여 극히 얇은 판이나 가는 선으로 만들어진다. 즉 1g의 순금으로 약 3,000m까지 늘릴 수 있으며, 0.00025mm의 金箔으로 만들 수 있다. 전용일, 『金屬工藝技法』(디자인하우스, 1994), p. 13.

고대 금사제작법에는 두드리기(Hammering), 꼬기(Twisting), 늘리기(Drawing)법이 있다. 'Hammering'은 긴 금 조각을 둥글고 편평한 단면의 管 모양이 될 때까지 망치로 치는 가장 초보적이며 단순한 방법이다. 'Twisting'은 망치로 두드리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작은 직경의 금사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막대꼬기 'Block-twisting'와 리본꼬기 'Strip-twisting'이 있다. 'Drawing'은 원하는 두께의 금사가 만들어질 때까지 잡아당겨 늘리는 방법이다. 가늘고 긴 금조각을 직경이 점점 작아지는 일련의 구멍이 뚫려있는 도구(整線板: Draw-plate)를 사용하여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Christiane, Eluere, 위의 책(1989), pp. 141~142; Moorey, P. R. S, *Materials and Manufacture in Ancient Mesopotamia* (London, 1985), p. 86.

6) 구슬선의 제작에는, 12세기 유럽의 기록에 의하면, 'Beading-file'과 'Double-matrix'이라는 구체적인 도구의 사용이 전해진다. 前者는 오크와 같은 단단한 나무판(Anvil) 위에 금사를 올린 다음 속이 움푹하게

'Grgranulation'의 모방으로도 볼 수 있다.

누금법에 사용된 金粒의 제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몇몇 가능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sup>7)</sup> 첫째, 金絲나 金版을 잘라서 동일한 크기의 금 조각을 만들고, 이를 도가니 속에 숯가루와 한 층씩 번갈아 가면서 놓은 다음, 도가니를 봉하여 용광로 속에 넣고 열을 가하면 금 조각은 같은 크기의 작은 球形으로 녹아 각각 석탄층으로부터 분리되어 금립만 남는 방법이다. 이는 단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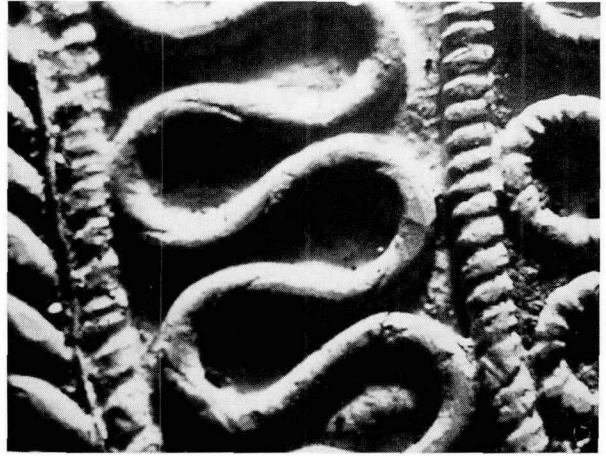


圖 1. 장식없는 선(Plain-wire)과 구슬선(Beaded-wire)

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녹인 금물을 체를 통해 물 속이나 숯가루층 위에 떨어뜨려서 표면장력과 갑자기 냉각되는 금속 열에 의해서 금립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만든 金絲와 金粒을 금속의 표면에 접착시키는 방법은 누금법의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접착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해지지 않아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세기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땀질(Soldering) 과정이 밝혀졌다. 땀질이란 먼저 媒介劑(溶媒)인 땀을 금속표면과 장식요소 사이에 놓고 가열하면 접착제가 녹으면서 모든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접착방법이다.<sup>8)</sup>

땀질에 사용되는 매개체는 軟鑲(Soft Solder)과 硬鑲(Hard Solder)이 있는데, 누금법에는 경납 중에서도 비금속납이 사용되었다.<sup>9)</sup> 비금속납은 미리 만든 금속의 합금을 사용함으로써 땀

파인 양날의 도구(Double-edged Tool)인 'Beading-file'의 손잡이를 쥐고 돌리면 구형의 구슬이 만들어진다. 後者は 두 조각의 청동으로 제작된 도구 속에 금속사를 넣어 눌러서 구슬선을 만드는 것이다. Wladyslaw, Duczko, 위의 책(1985), pp. 18~23.

7) Christiane, Eluere, 위의 책(1989), pp. 204~205; Reynold, Higgins, 위의 책(1980), p. 20; Wladyslaw, Duczko, 위의 책(1985), pp. 23~24; E. A. Smith, *Working in precious Metals* (London, 1978), p. 315.

8) 땀질(Soldering)은 금속공예의 대표적인 접합 방법으로 접합할 때 바탕 금속을 녹이느냐의 여부에 따라 鎔接(Welding)과 구별된다. 용접은 접합하려는 금속의 몸체를 서로 녹이면서 붙이는 것임에 반해 땀질은 몸체를 녹이지 않고 몸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 매개체가 두 물체 사이에 흘러 들어가 서로 붙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용접은 같은 재질의 금속끼리만 접합이 가능하지만 땀질은 다른 금속끼리도 가능하다는 차이가 생긴다. 전용일, 위의 책(1994), p. 57.

땀질(Soldering)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서가 있으며, [Wladyslaw, Duczko., 위의 책(1985); Reynold, Higgins., 위의 책(1980)]을 참고할 수 있다.

의 흔적을 남기는 금속납과 달리 땀질과정에서 일련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합금이 만들어지므로 화학적 납이라고도 한다.<sup>10)</sup> 즉, 화학적인 반응으로 금속의 표면에 장식요소를 접착시키므로 각 장식 요소들은 뚜렷한 윤곽을 지니게 되어 장식적인 효과가 높다. 또한 비금속납은 이전에 만들어진 접착을 녹이지 않고 땀질을 반복할 수 있어 정교한 공예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금사로 먼저 장식한 다음 재차 금립으로 장식하는 경우가거나 많은 수의 금알갱이를 나열하거나 무더기로 문양을 표현하는 금립장식에 애용된다.

누금법에는 경우에 따라서 금속의 표면을 금사나 금편으로 구획하여 그 속에 보석을 박거나 유색의 물감(Paste)을 칠하여 문양의 효과를 강조하는 공정도 포함된다. 보석류를 嵌藏하는 방법에는 카보션(Caboson)기법<sup>11)</sup> 과 클로이존네(Cloisonne)기법<sup>12)</sup>이 있다.

### Ⅲ. 鑲金細工技法의 起源과 傳來

고신라 누금법의 기원을 설명할 때, 누금법은 이집트12왕조부터 시작한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sup>13)</sup> 그러나 누금법의 출현은 메소포타미아 초기왕조시대(3000~2400 B.C.)까지 올라간다.<sup>14)</sup> 현존하는 유물을 중심으로 누금법의 기원과 고대 금속공예의 장식기법으로 성행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함으로써 누금세공기법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누금법은 슈메르(Sumer)인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된 공예기법이며, 메소포타미아 우루(Ur)

9) 납과 주석의 합금인 연납은 고대의 보석세공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도 가장 싼 보석의 땀질에만 사용된다. 경납은 연납보다 열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접착이 강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귀금속의 납 땀에 주로 사용된다. 경납에는 다시 금속납과 비금속납으로 분류된다.

10) 비금속납은 鹽化銅과 같은 銅化合物에 트라라칸트 樹液이나 생선야교와 같은 유기물 접착제와 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이다. 섭씨 100℃에서 銅化合物은 酸化第2銅으로 변하고, 600℃에서 야교는 탄소로 전환한다. 850℃에서 탄소는 酸化銅을 환원시켜 炭素1酸化物을 만들어 숯불과 함께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고 접합 부분 사이에 純銅層을 남기면서 炭素2酸化物이 된다. 약 900℃에 이르면 금속의 표면과 장식요소들 간에 순동의 확산이 일어나 금과 동이 녹아서 접합이 이루어진다. Reynold, Higgins, 위의 책(1980), pp. 21~22

11) 카보션기법은 라피트라즐리(Lapis Lazuli), 터키석(Turquoise), 瑪瑙(Agate), 琥珀(Amber), 翡翠(Jadeite) 등의 보석을 둥글게 다듬어서 이를 금사나 금편으로 구획한 공간인 알(卵)집(bazel) 내에 넣고 구획선을 약간 눌러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주로 헬레니즘 미술에서 애용되었고, 현대 금속공예에서는 보석 세팅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전용일, 위의 책(1994), p. 162.

12) 클로이존네기법은 금속면에 가는 선을 구부리거나 꺾어서 의도하는 무늬의 윤곽을 형성한 다음 색채가 있는 보석이나 유리 등을 薄片으로 다듬어 박고 구획을 눌러서 붙이는 방법으로 빛과 색채의 효과를 강조한 게르만 미술에서 많이 사용된 기법이다. Encyclopedia Britannica, Vol 3, Univ of Chicago (1910), p. 394.

13) 李蘭英, 『古代金屬工藝研究』(一志社, 1992).

14) Christiane, Eluere., 위의 책(1989), p. 38.

王墓 580號墳<sup>15)</sup> 북쪽에서 발견된 黃金短劍(圖 2)이 最古의 유물이다. 기원전 2500~2600년 경에 제작된 37.3cm 크기의 단검의 칼집 표면에는 금알갱이와 금사로 기하학적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오리엔트에서 발생한 누금법은 기원전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지중해 연안으로 확산된다. 기원전 2003년 엘람인(Elamites)이 우루3王朝를 침략함으로써 야기된 정치적 혼란으로 슈메르의 금공 기술자들은 東地中海 연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지금의 시리아, 팔레스티나, 레바논 등이 오리엔트 금속공예의 중심 생산지가 되었고,<sup>16)</sup> 15세기 이후에는 알라라크(Alalakh)와 우가리트(Ugarit)로 북상하였다. 우가리트출토 귀걸이(圖 3)는 초생달 형태의 金輪에 터어키석의 연꽃 봉우리가 달린 형태이다. 황금으로 된 고리 부분의 표면에는 가는 금알갱이가 삼각 연결문으로 장식되어 있다.<sup>17)</sup>

동지중해 연안으로 전파된 누금법은 기원전 1800년경에는 후리인(Hurrian)의 북시리아 침입을 계기로 남쪽의 이집트 대륙까지 파급된다. 이집트에서는 제12왕조(1991~1786 B.C.)의 아메네메스 2세(Ammenemes II)(1929~1895 B.C.) 통치기에 이르면, 금립을 나열하여 삼각형 문양을 장식한 긴 실린더형의 부적(圖 4)과 같은 유물이 제작되며, 新王國(1567~1085 B.C.)의 제18왕조에 이르면 더욱 발전한다.<sup>18)</sup>

또한 누금법은 오리엔트 문화를 서방으로 전래시킨 페니키아인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래되어,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의 금세공기술로 발전한다. 그리스의 누금법은 아케익期(600~475 B.C.)와 古典期(475~330 B.C.)에 발달한 귀금속세공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한다.<sup>19)</sup> 에레트리아(Eretria)출토 귀걸이(圖 5)는 커다란 로제트형 원반에 바다의 요정이 앉아있는 보트 모양과 조개껍질을 매단 4줄의 사슬로 구성되었다. 보트 모양의 금판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사가 정교하게 장식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귀걸이는 기원전 4세기 중엽경에 전형화되어 기원전 300년경까지 지속되는데, 스키타이 금속공예에서도 다수 제작된다(圖 24).

유럽의 누금법은 에트루리아에서 기술적 우수성이 최고조에 달한다. 에트루리아에서는 장신구의 표면에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Granulation'이 극도로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장식기법은 오늘날까지 에트루리아의 비밀로 남아있다.<sup>20)</sup> 베툴로니아(Vetulnolia)출토 금제핀

15) 580號墳은 墓室이 없기 때문에 독립한 王墓가 아니고, 777號墳의 부속실이라는 견해도 있다. 『大系世界の美術』 2卷: 古代西アジアの美術(學習研究社, 1975), 圖 11 도판설명

16) Christiane, Eluere, 위의 책(1989), p. 40; Maxwell-Hyslop, K. R., *Western Asiatic Jewellery C.3000-612 B.C* (London, 1971), p. 134.

17) 江上波夫·深井晋司, 『シリアの秘寶』(講談社, 1979), 圖 130 도판설명

18) 투트 안크-아멘(Tut Ankh-Amen)王(재위기간 : 1347~1352 B.C.)의 부장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世界の文化事蹟』 1卷: ナイルの王墓(講談社, 1967), p. 173 ; 『エジプトの秘寶』 卷3, トウト・アंक・アメンエ(講談社, 1967).

19) 『世界の至寶』 2卷: ギリシア・ビザンチン・ローマ(講談社, 1983),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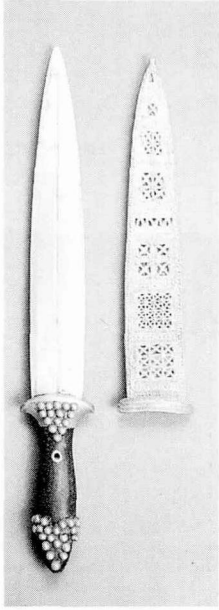


圖 2. 우루(Ur)왕묘 580호분출토 황금단검 · 칼집, 全長: 37.3cm, C.2600 B.C., 이라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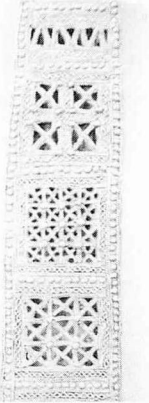


圖 3. 우가리트(Ugarit)출토 귀걸이, Ca. 1400 B.C. 바그다드 다마스쿠스박물관



圖 4. 실린더형 부적, 이집트12왕조

(圖 6)과 볼치(Vulci)출토 금제부로치(圖 7)는 모두 얇은 금판으로 핀과 부로치 형태를 만든 다음, 표면에 다수의 금립을 장식함으로써 원하는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루블미술관소장의 금제펜던트(圖 8)는 타출기법으로 신의 얼굴을 만든 다음, 두발과 턱수염을 직경 0.1mm(100 $\mu$ )

정도의 극히 세립으로 장식한 우수한 유물이다 (圖 8-1).

유럽에서 발전기를 맞이한 누금법은 그리스와 스키타이의 접촉으로 다시 동으로 전래된다. 고전기 그리스의 금공기술과 금제유물들은 그리스의 흑해연안의 식민지활동으로 스키타이 황금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다.<sup>21)</sup> 흑해연안의 크리미야 지방의 파스타크(Pastak) 2호분출토 귀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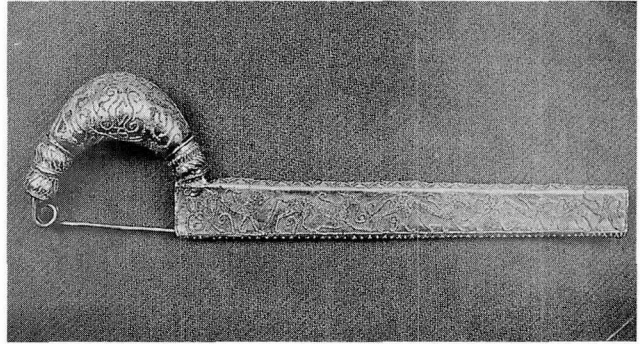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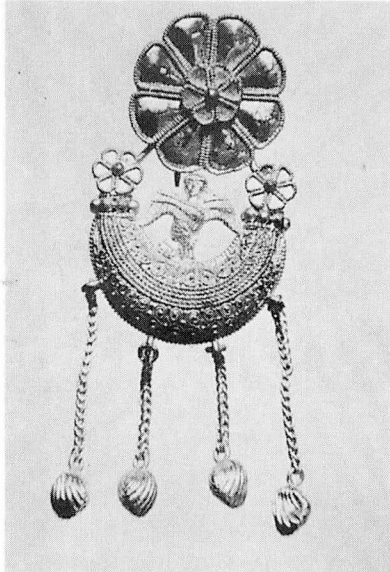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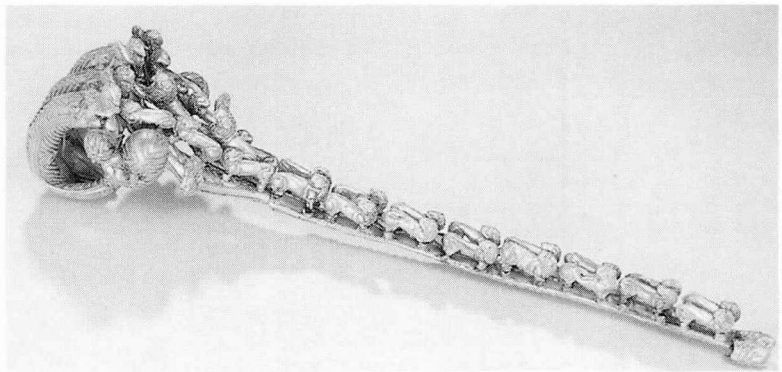


圖 6. 베툴로니아(Vetulonia)출토 금제핀, Ca. 650~600 B.C, 全長: 15.6cm, 프로렌스고고박물관

圖 5. 에레트리아(Eretria)출토 귀걸이, 全長:6cm, Ca. 330 B.C. 메트로폴리탄박물관

圖 7. 볼치(Vulci)출토 금제부로치(fibula), 全長: 18.6cm, 기원전 7세기, 대영박물관



20) Reynold, Higgins., 위의 책(1980), pp. 135~137.

21) 아크-부룬(Ak-Burun)과 쿨-오바(Kul-Oba) 등 黑海沿岸의 스키타이 고분에서는 그리스에서 제작된 그리스 공예품을 비롯하여 그리스 요소를 가졌거나, 또는 그리스인이 스키타이인의 취향에 맞게끔 제작한 것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피오토프스키, 『스키타이 黃金美術』(講談社, 1981); 國立中央博物館(編), 『스키타이 黃金』, 國立中央博物館(1991).



圖 8. 에트루리아 금제펜던트,  
500 B.C. 루블미술관



圖 8-1. 에트루리아 금제펜던트 세부

(圖 9)와 같은 장신구를 통하여 새로운 금속공예 기술인 누금법은 스키타이로 전래된 것이다.

동으로 전래된 누금법은 시베리아以西의 협의의 스키타이 지역에서부터 시베리아以東의 알타이-오르도스 지역,<sup>22)</sup> 중국과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금제유물의 장식기법으로 등장한다. 시베리아 이동지역에서 발전한 누금법은 파지리크(Pazyryk)문화와 북방 유목문화의 동단에 위치한 匈奴文化에서도 찾아진다. 산지 알타이(High Altai) 바릭숙(Baryk-Sook)출토 금제귀걸이(圖 10)는 小環과 원통형의 중간식, 열매 모양의 수하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간식의 표면에는 금알갱이가 장식되었다. 귀걸이의 형태와 장식기법면에서 스키타이 황금미술과 누금

22) 스키타이(Scythia)라는 용어는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黑海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남러시아의 기마유목민족인 스키타이인(Scythians)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뉴브강에서 알타이에 이르는 유라시아의 거대한 스텝지역을 본거지로 하여 경제적, 문화적으로 공통된 생활을 영유하고 있던 여러 부족들의 복합체인 스키타이 세계(The Scythian World)라는 넓은 의미도 있다. [國立中央博物館(編), 위의 책(1991), p. 18] 그리하여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고대 유목민족들은 遊牧文化와 動物樣式이라는 공통된 문화적 내용과 양식을 지니고 있어 일괄하여 스키타이系 또는 스키타이風 遊牧文化라 일컬어져 왔다. [江上波夫, 『亞細亞文化史研究』(出川出版社, 1967), p. 56~57; 岡崎敬, 『東西交渉の考古學』(平凡社, 1973), p. 46] 그런데 스키타이系(風)로 포괄하던 연구경향은 최근에 이르러서 그리스의 영향하에서 문화상의 발전을 이룩한 시베리아 서쪽의 스키타이系와 시베리아以東地域의 시베리아-오르도스系로 구분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李鍾宣, 「오르도스 後期金屬文化와 韓國의 鐵器文化」, 『韓國上古史學報』 2호(韓國上古史學會, 1989), p. 18 주 11)에서 재인용 [原出] Jettmar, K. *Die Fruhen Steppenvolker Kunst der Welt* (Holle Verlag, Baden-Baden, 1980)]

법이 시베리아 以東地域으로까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阿魯柴登遺蹟<sup>23)</sup>에서 출토된 금제귀걸이(圖 11)에도 중간식 표면에 금립이 장식되었다. 특히 귀걸이의 형태가 고신라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삼국시대 이식과 매우 유사하여 삼국시대 이식의 기원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된다.<sup>24)</sup>

흉노의 문화는 중국의 전국시대와 한대의 문화에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25)</sup> 중국의 누금법은 전국시대이래의 전통에 새롭게 전래된 금세공기술의 영향을 받아 전한 중기부터 출현한다.<sup>26)</sup> 전한 후기를 거쳐<sup>27)</sup> 후한 초기의 江蘇省 邯江縣 甘泉2號墳<sup>28)</sup>이나 후한 후기의 河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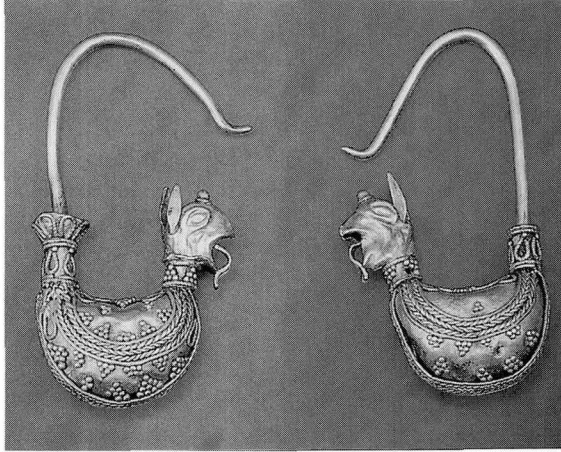


圖 9. 파스타크(Pastak)2호분출토 귀걸이,  
全長: 6.4cm, 4C B.C., 에르미타주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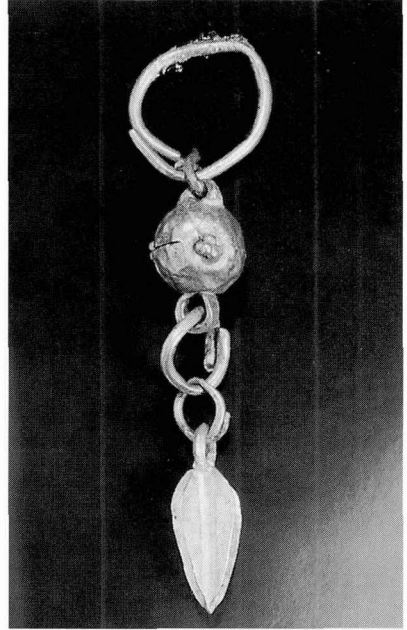


圖 10. 산지 알타이(High Altai) 바릭숙(Baryk-Sook)출토 금귀걸이,  
全長: 6.3cm, 400~300 B.C., 시베리아고고학연구소

23) 阿魯柴登古墓는 南蒙古의 오로도스 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前期 匈奴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매와 山羊, 馬虎로 장식된 금관을 비롯한 218여건에 달하는 금제유물이 출토되었다. 全廣金 外, 「內蒙古阿魯柴登發現的匈奴遺物」, 『考古』80-4 (北京: 科學出版社, 1980), pp. 333~338.

24) 李鍾宣, 위의 논문(1989), pp. 37~38.

25) 江上波夫, 『亞細亞文化史研究』(出川出版社, 1967), pp. 88~89.

26) 전한시대의 누금법의 유물에는 南越王 趙胡墓와 中山國王 劉勝墓에서 출토된 단순한 형태와 초보적인 장식 기법의 금공품이 있다. 知賀和子, 「漢代北方系帶金具考」(下), 『古代文化』46-8 (古代學協會, 1994), 圖 8 참조.

27) 五鳳 3年(기원전 55년)에 죽은 中山國王 懷王인 劉脩의 묘(河北定縣40號墳)에서는 金鏤玉衣를 비롯한 풍부한 유물과 다수의 竹簡이 출토되었는데 馬蹄金과 麟趾金은 전한 후기 누금법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知賀和子, 위의 논문(1994), p. 18; 『漢나라 황금보물전』(거손, 1996), 圖 63 도판설명: 河北省文物研究所, 「河北定縣40號漢墓發掘簡報」, 『文物』1981-11 (北京: 文物出版社, 1981), pp. 1~10.



圖 11. 阿魯柴登 匈奴墓出土 金製귀걸이,  
全長: 8.2cm, 300~250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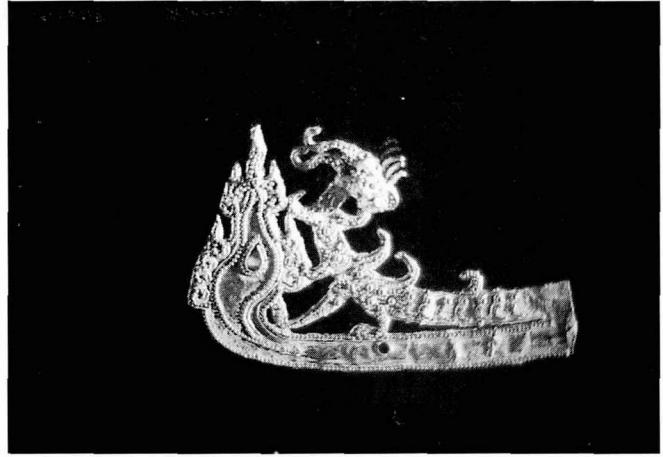


圖 12. 江蘇省 邳江縣 甘泉2號墳出土 龍形金片飾, 全長: 4.6cm, 後漢 初期, 南京博物院

省 定縣43號 漢墓<sup>29)</sup> 출토품에서는 누금법이 일층 발전한다. 甘泉2號墳에서 출토한 누금법의 유물<sup>30)</sup> 중에서 龍形金片飾(圖 12)은 꼬리 부분은 소실되었지만, 금사와 미세한 금립을 이용하여 용의 눈과 귀, 이빨, 수염, 용신의 비늘까지 표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石巖里9號墳出土 金製帶鉤(圖 13)도 후한 초 새로운 금속공예 기술을 받아들여 용이라는 중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하여 장식할 정도로 발전한 후한 후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sup>31)</sup>

한 이후의 누금법은 金冠飾, 반지, 비녀, 小籃, 簪頭, 金珠 등 여러 종류의 장신구<sup>32)</sup>와 금제용기<sup>33)</sup>의 장식기법으로도 응용되었다. 馮素弗墓<sup>34)</sup>出土 山形金飾片(圖 14)은 步搖冠의 정면을 장

28) 南京博物院, 「江蘇邳江甘泉2號漢墓墳」, 『文物』1981-11 (北京: 文物出版社, 1981), pp. 1~10.

29) 定縣43號墳 漢墓는 後漢 熹平3年(174)에 죽은 최후의 中山王 劉暢의 墓이다. 定縣博物館, 「河北定縣43號漢墓發掘簡報」, 『文物』1973-11 (北京: 文物出版社, 1973), pp. 8~20.

30) 甘泉2號墓에서 출토한 약 30여건의 金器-泡形金飾(3件), 並形金飾(2件), 品形金飾(2件), 盾形金飾(1件), 王冠形 金飾(1件), 龍形金飾片(1件) 挂鎖形金飾(1件) 등 -의 표면에는 금사와 금립이 장식되거나 보석류가 감장되었다. 南京博物院, 위의 논문(1981), 圖版 참조: 『中國美術全集』10: 工藝美術篇 (北京: 文物出版社, 1987), 圖 40~43; 知賀和子, 위의 논문(1994), 圖 9.

31) 용을 타출하여 누금법으로 장식한 金製帶鉤는 연대불명의 焉耆古城 주변 古墓 출토품과 湖南省 安鄉縣 劉弘墓에서 출토한 西晉의 金製帶鉤가 있다. 韓翊, 「焉耆國都, 焉耆都督府治所與焉耆鎮城」, 『文物』1982-4 (北京: 文物出版社, 1982), pp. 8~12; 安鄉縣文物管理所, 「湖南安鄉西晉劉弘墓」, 『文物』, 1993-11 (北京: 文物出版社, 1993), pp. 1~12.

식하는 帽正(題, 璫)인데, 금식편의 표면을 가는 눈금이 새겨진 금사를 구부려 문양을 표현하고 금사의 양옆에는 좁쌀알 같은 금립이 장식되었다. 이외에도 청동판에 여러 문양을 오린 금판을 붙인 다음 금사와 금립으로 꾸민 금식으로는 敦煌晋墓<sup>35)</sup> 출토품을 비롯하여 다수의 예가 있다. 이처럼 중국의 누금법이 육조시대에 金冠飾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耳飾의 표면장식기법으로 발전한 고신라 누금법과 구별되는 점이다.



圖 13. 樂浪 石巖里9號墳出土 金製帶鉤, 全長: 9.4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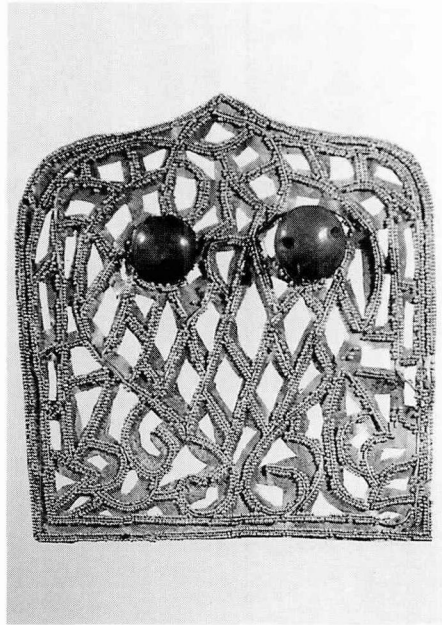


圖 14. 馮素弗墓출토 山形金飾片, 高: 7.1cm, 幅: 6.9cm, 北魏, 遼寧省博物館

- 32) 湖南省博物館, 「長沙南郊의兩晋南朝隋代墓葬」, 『考古』1965-5 (北京: 科學出版社, 1965), pp. 225~229의 金飾, 金魚形式, 金籃, 和長方形飾, 鏤空花金珠, 垂靈形金珠, 金珠: 羅宗真, 「江蘇宜興晋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57-4 (北京: 科學出版社, 1957), pp. 83~105 圖版 捌 1.3.4. 小籃, 簪頭: Tait, Hugh., *Jewelry 7,000 Year's* (New York, 1986), 圖 258, 唐 머리핀 참조
- 33) 陝西省 安南郊 何家村에서 출토된 寶相花紋金鉢(높이:5.9cm 陝西省博物館所藏)은 그릇의 표면에 금사로 4개의 보상화를 장식하고 꽃잎의 가장자리를 따라 금립을 장식하였다. 朝日新聞社(編), 『文化革命中の中國出土遺物』(朝日新聞社, 1973), pp.183~184.
- 34) 北燕(409~436)王 馮跋의 동생인 馮素弗과 부인의 석곽묘에서는 선비족의 문물과 중원과 선비족의 문화가 융합한 흔적을 남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黎瑤渤,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1973-3 (北京: 文物出版社, 1973), pp. 2~28; 徐秉琨, 「北燕의馮素弗墓と鮮卑墓の出土遺物」, 『遼寧省博物館』中國の博物館 3 (講談社, 1985), pp. 178~179.
- 35) 敦煌文物研究所考古組, 「敦煌晋墓」, 『考古』, 1974-3 (北京: 科學出版社, 1974), pp. 191~199.

#### IV. 古新羅 鑲金細工 遺物의 造形과 鑲金法

##### 1. 鑲金細工 遺物의 造形的 特徵

고신라의 누금법은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는 금제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성행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현존하는 누금법의 유물을 시대별, 종류별로 나눈 <表 2>로도 알 수 있다. 현존유물을 근거로 할 때, 누금법은 삼국시대부터 금속공예의 기법으로 출현하여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삼국시대 유물이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주를 차지하고, 삼국 중에서도 특히 누금법은 고신라 금속공예의 장식기법으로 성행하였음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경우, 고분의 도굴과 패전국이라는 점으로 인해 금속공예품은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몇몇 귀절이에서 누금법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수하식 주연이 금사로 장식되었거나<sup>36)</sup> 몇 개의 금줄을 뿔로 붙여 원형이나 입방체를 만들어 중간식으로 한 이식<sup>37)</sup>을 통해서 누금법에서 중요한 금사제작 기술과 금사를 서로 붙이는 뿔기술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그러나 금립을 이용한 본격적인 누금법의 발달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제의 누금법도 양적인 면에서는 고신라 출토품에 미치지 못한다. 웅진시대(475~538) 후

<表 2> 鑲金細工技法의 遺物 (時代別·種類別)

時代	種類	裝身具									其 他	
		耳 飾		腕釧	指環	頸飾	帶金具· 腰佩具	其 他			裝飾金具	佛具類
		細環式	太環式					金鈴	머리 裝身具	用度不明 裝身具		
三 國 時 代	古新羅	○	○	○	○	○	○	○	×	×	○	×
	高句麗	×	○	×	×	×	×	×	×	×	×	×
	百濟	○	○	×	×	×	×	○	○	○	○	×
	伽倻	○	×	×	×	×	×	×	×	×	×	×
其 他	統一新羅	×		×	×	×	×	×	×	×	×	○
	渤海	×		×	×	×	○	○	×	×	×	×
	高麗	×		×	×	×	×	×	○	○	×	×

36) 평남 대동군출토 금제태환이식의 심엽형 수하식의 가장자리에 금사장식이 보인다.

37)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출토 금제태환이식의 중간식은 금사로 소환을 만들어 서로 연결한 형태이다. 황해도 평산군 적암면출토 금제태환이식(국립중앙박물관소장)은 새김눈금사를 중심으로 소환을 붙여서 만든 반구체를 상하에 붙인 중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의 무녕왕릉출토 유물<sup>39)</sup>이 대표적이며, 사비시대(538~660)의 몇몇 장신구<sup>40)</sup>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누금법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금사와 금립장식이 고신라 못지않게 발달하였다. 특히 세립의 금립장식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고신라 금속공예 기법으로 발달한 누금법은 積石木槨墳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석목곽분에서부터 다수의 금제유물이 출토되고, 그러한 금제유물의 장식기법으로 누금법이 등장한 것이다. 고신라 누금법은 적석목곽분의 초기분에 속하는 月城路가-13號墳에서부터 시작하여 적석목곽분과 석실분이 공존하는 慶州 普門洞 夫婦塚에 이르기까지 금속공예 장식기법으로 성행하였다.

또한 유물의 종류면에서 보면 金製耳飾을 비롯하여 金製腕釧, 金製指環, 金製頸飾, 金鈴 등 금제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성행하였다 <表 2>. 이 점은 東·西 金屬工藝에 적용된 누금법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누금법은 <表 1>에서 알 수 있듯이 금사와 금립을 이용하여 이차적으로 장식하는 細工(裝飾)技法이므로, 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존 유물의 양적인 면에서 볼 때, 금제장신구 중에서도 耳飾이 대다수를 차지함은 고신라만의 특수성이다. 누금법은 주환부와 중간식, 수하식으로 구성된 이식의 표면장식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환의 크기에 따라 양분되는 太環耳飾과 細環耳飾에 모두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신라 누금법의 조형적 특징은 누금법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금사와 금립을 함께 장식한 경우가 빈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嵌玉까지 첨가되는데, 장식의 중요도는 금사장식에서 차츰 금립장식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皇南大塚南墳出土 金鈴(圖 15)과 皇南大塚北墳出土 腕釧(圖 16)에서 알 수 있듯이 누금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금사와 금알갱이를 함께 장식하되, 먼저 금사로 장식한 다음 금사를 경계로 삼아 다시 좌우에 금알갱이를 나열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보석을 감장하는 경우에도 장식의 주안점은 금사와 금립장식에 있고, 보석은 화려함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황남대총북분출토 팔찌는 3.6cm 폭의 금판을 바깥쪽으로 말아 붙여 원통형 테를 만들고 그 사이에 다시 금판을 한 장 덧붙인 독특한 형태로 쿨-오바(Kul-Oba)출토 금제팔찌(圖 17)와

38) 만약 누금법을 공예품의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세선을 이용하여 小環連接球體나 立方體를 만드는 기법까지도 포함시킨 견해[주경미, 「삼국시대 이식의 연구-경주지역 수하부이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 25 주 33]; 리일남, 「고구려 귀걸이의 형태와 기법」, 『조선고고연구』 80-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 34]에서 보면 고구려 누금법의 존재는 더욱 분명하다.

39) 무녕왕릉출토 금속공예품 중에서 누금법으로 장식된 예에는 왕과 왕비의 金製細環耳飾, 金帽, 金製小珠, 環頭大刀, 金銀裝刀子의 손잡이 장식 등이 있다.

40) 부여 동남리, 주미리 3호분, 송산리고분출토 금제세환이식과 서울능동, 진천 회죽리출토 금제태환이식, 부여군 구암면 함양리 발견 비녀장식, 부여군 은산면 금곡리출토 금제장신구, 부여군 능산리 건물지출토 장식 금구와 원형장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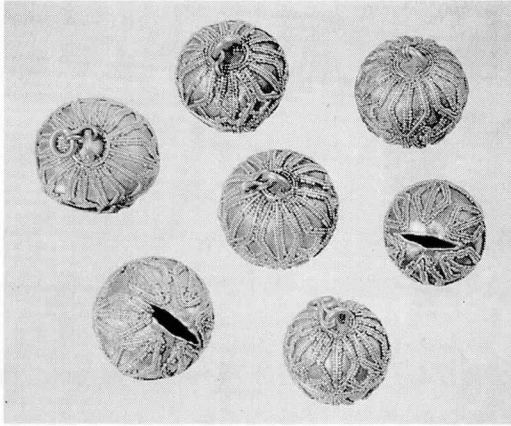


圖 15. 皇南大塚南墳出土 金鈴(8개)  
直徑: 1.8~2.1cm, 國立中央博物館



圖 16. 皇南大塚北墳出土 金製鑲金嵌玉腕釧,  
直徑: 7cm, 國立中央博物館



圖 17. 쿨오바(Kul-Oba)출토 腕輪, 直徑: 10.1cm,  
4C B.C., 에르미타주미술관



圖 18. 金鈴塚出土 金鈴(1쌍), 全長: 2.5cm,  
國立中央博物館

제작기법이 동일하다. 이는 고신라 누금법이 스키타이 금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기도 하다.

누금법이 발달함에 따라 금사장식에서는 금사에 눈금을 새긴 구슬선(Beaded-wire)의 사용이 빈번해진다. 이는 금사에 구형의 눈금을 새김으로써 마치 금알갱이를 나열한 듯한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장식의 주안점이 금립장식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金鈴塚에서 출토된 장신구들이 이에 속한다. (圖 18)의 金鈴은 표면에 금립의 효과를 최대한 살린 구슬선으로 격자문이 구

확되고 내부에 유리가 감장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장식기법의 세환이식과 팔찌, 반지 등도 동고분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육안으로 볼 때 금립과의 구별이 쉽지 않는 구슬선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후 고신라 누금법은 금사를 경계로 하지 않고 금립만으로 선을 이루거나 문양을 도안화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세환이식의 경우<sup>41)</sup> 타원형의 중간식의 표면에는 금편으로 만든 돌기가 있고, 돌기의 가장자리를 금립으로 장식하고 또한 돌기와 돌기 사이도 금립으로 연결하였다. 주환에 중간식을 거는 고리와 중간식과 수하식을 연결하는 고리의 표면에는 금립을 무더기로 장식하여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다 (圖 19).

이와 같이 이식의 표면에 금립이 무더기로 또는 일렬로 접착되었다는 것은 누금법이 전성기를 맞이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마름모꼴 돌기의 가장자리를 장식한 금립은 완전하지만, 각 돌기들을 연결하고 있는 금립은 많은 부분 탈락되었으며,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타원형의 표면에 금사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바로 금립만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둥근 태환과 유환, 중간식, 수하식의 전면에 금사와 금립이 화려하게 장식된 이식도 누금법의 전성기의 예다. 慶州 普門洞夫婦塚婦墓出土 金製太環耳飾으로 대표되는 태환이식<sup>42)</sup>의 둥근 주환부에는 금사와 금립으로 龜甲紋이나 花紋 등을 꾸미기도 하고, 부분 부분 금립을 나열하여 돌을새김하거나 금립을 무더기로 장식하여 삼각형을 이루기도 한다 (圖 20).

또한 전성기 누금법에서는 보석을 감장할 경우에도 鷄林路14號墳出土 寶劍(圖 21)에서와 같이 카보션과 함께 클로이존네 기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이는 보석의 색채와 빛의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장식의 주안점은 금사와 금립장식 보다는 감옥에 있다. 이 단검의 형태와 장식기법은 카자흐스탄 브로우예(Borovoje)출토 단검을 비롯하여 기마유목민들의 호신용 칼과 매우 유사하다 (圖 22).

지금까지 설명한 누금법의 발전단계를 정리하면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을 기법의 도입기로 본다면, 金鈴塚은 금사중심의 장식에서 금립중심의 장식으로의 전환기이다. 전환기에는 金冠塚, 瑞鳳塚, 天馬塚 등이 포함된다. 鷄林路14號墳에서 慶州 普門洞 夫婦塚 婦墓에 이르는 시기가 全盛期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壺杆塚, 金尺里古墳 등이 있다.

이같은 누금법의 편년은 누금법만의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고신라 고분과 동일한 궤적을 이

41) 鷄林路14號墳出土 金製細環耳飾(2쌍, 全長: 6cm, 6.8cm,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하여 壺杆塚出土 金製細環耳飾(1쌍, 全長: 6.7cm, 국립중앙박물관), 月城郡 金尺里古墳出土 金製細環耳飾(1쌍, 全長: 8.1cm,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2) 慶州 普門洞 夫婦塚 婦墓出土 金製太環耳飾(1쌍, 全長: 8.9cm, 국립중앙박물관)과 유사한 형태와 장식기법의 이식으로는 金鳥塚出土 金製太環耳飾(1쌍, 全長: 9cm, 동아대학교박물관), 호암미술관 소장 金製太環耳飾(1쌍, 全長: 9cm), 小倉Collection 金製太環耳飾(1개, 全長: 8.4cm)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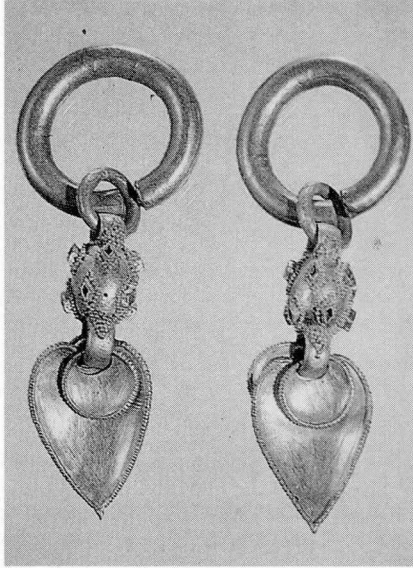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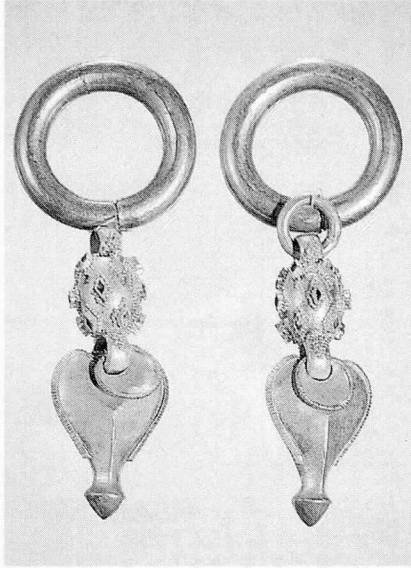


圖 19. 鷄林路14號墳出土 金製細環耳飾 (1쌍), 全長: 6cm, 國立慶州博物館



鷄林路14號墳出土 金製細環耳飾(1쌍), 全長: 6.8cm, 國立慶州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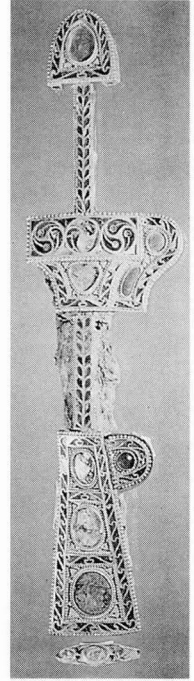


圖 21. 鷄林路14號墳出土 金製鑲金嵌裝寶劍, 全長: 36cm, 國立慶州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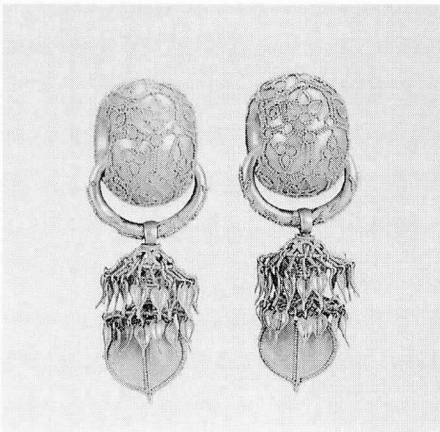


圖 20. 普門洞夫婦塚婦墓出土 金製大環耳飾(1쌍), 全長: 8.9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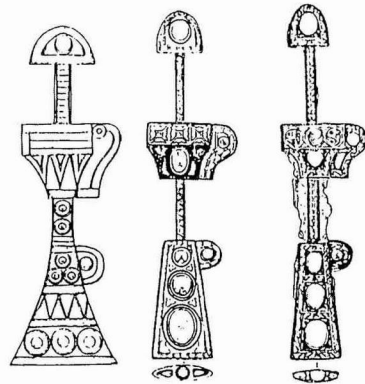


圖 22. 보루우에묘출토 단검, 에르미타주미술관 · 키질석굴 69동 주실 전벽 입구상단 불공양자상의 단검

루고 있음이 흥미롭다 <表 3>. 즉, 고신라 누금법은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전개, 쇠퇴와 동일궤적에 있음을 의미한다.<sup>43)</sup>

<表 3> 古新羅 鍍金細工技法의 編年

	該當古墳	同一系列의 古墳
導入·展開期	月城路 가-13號墳	
	皇南大塚 南墳·北墳	
轉換期	金鈴塚	金冠塚
		瑞鳳塚 天馬塚
全盛期	鷄林路 14號墳	味鄒王陵C地區1號墳 壺杆塚 金尺里古墳
	普門洞 夫婦塚 婦墓	
衰退期	皇南洞 151號墳	

慶州 普門洞夫婦塚婦墓出土 太環耳飾과 같은 전성기를 구가한 누금법의 유물을 통해 불확실한 고신라 누금법의 공정을 유추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금사의 제작은 서양의 'Draw-plate' 와 같은 인발板을 이용한 Drawing 법이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夫婦塚出土 金製太環耳飾에 사용된 0.7~0.8mm 두께의 금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굵기의 구멍이 뚫린 인발판에 금사를 넣고 빼는 작업의 반복이 요구되었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0.6~0.7mm, 평균 0.67mm 크기의 金粒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金片을 석탄층에 넣어 열을 가하거나 녹인 금물을 水中이나 숯가루 위에 떨어뜨려 표면장력에 의해 제작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인 금립 제작법을 사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오늘날 누금법의 유물을 재현할 때에도 수 많은 구멍이 뚫린 철판(圖 23)을 이용하여,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보통 0.7~0.8mm의 금사를 제작하며, 0.8mm 두께의 금사를 0.7~0.8mm로 잘라서 산소 용접불로 열을 가해서 0.6~0.7mm 굵기의 금립을 만든다.<sup>44)</sup>

금사와 금립을 장신구의 표면에 접착하는 방법도 강한 접착이 가능하고 귀금속의 납땜에 사용되는 硬鑱(Harder Solder) 중에서도 땜질 과정에서 합금이 만들어지는 비금속(화학적) 납

43) 고신라 적석목곽분의 편년안 중에서 적석목곽분의 품계에 따라 시도한 李鍾宣의 편년(李鍾宣,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品階와 編年(上: 王族)墓」, 『韓國考古學報』 35 (韓國考古學會, 1996), 別表 4)과 거의 일치한다.

44) 慶州 民俗工藝村 三仙房에서 고신라 누금법의 유물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땀땀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몇 알갱이의 금립을 금속의 표면에 붙이는 것은 금속땀땀을 매개체로 할 수 있었을 것이나, 皇南大塚 南墳出土 金鈴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경우 금사와 금립을 반복하여 장식한 경우에는 여러 번 접착이 가능하고 접착이 끝난 후에도 땀땀의 흔적을 극소화하여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학적 납땀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을 것이다. 특히 세환이식의 타원형 중간식이나 태환이식의 둥근 주환부에 금사와 함께 금립을 일렬로 나열하거나 금립만으로 삼각형의 장식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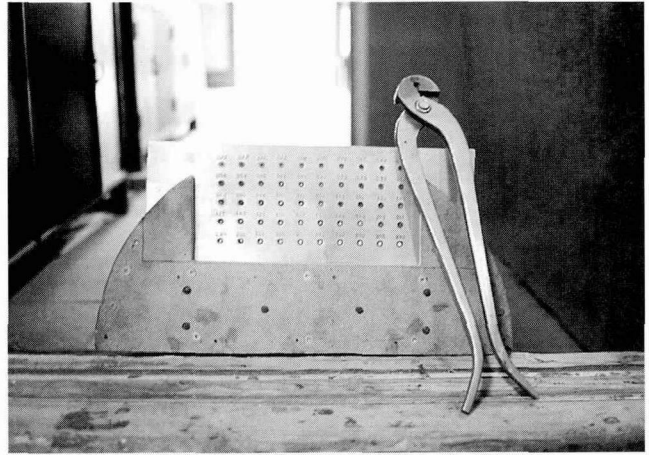


圖 23. 引拔板

고신라 누금땀땀의 제작공정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0.7~0.8mm 두께의 금사와 0.6~0.7mm 크기의 금립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금속의 표면에 흔적 없이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당시 금속공예 기술과 누금땀땀이 발달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 2. 鍍金法の 傳來와 衰退

누금땀땀이 삼국시대 금속공예, 특히 고신라 금속공예에서 성행하였으며 왜 쇠퇴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은 고신라 금속공예와 미술의 특수성을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누금땀땀이 고신라 금속공예의 장식기법으로 등장한 배경의 검토에는 積石木槨墳과 耳飾의 起源을 문제 해결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

고신라 누금땀땀은 적석목곽분의 부장품인 金製裝身具의 장식기법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누금땀땀과 적석목곽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광묘 축조기에는 금제유물과 누금땀땀으로 장식된 유물의 출토 예가 전무하다. 그러나 적석목곽분에서는 금제유물의 수가 갑작스럽게 증대되고 누금땀땀으로 장식된 유물의 출토가 이어진다. 이같은 현상은 적석목곽분과 함께 古新羅 文化의 特殊性으로 부각되어 왔다.<sup>45)</sup> 그러므로 적석목곽분이 어떻게 하여 고신라 주요제로 조영되었는

45) 齋藤忠도 삼국시대 신라문화의 특질을 금의 문화와 장대한 표형분과 적석식 목곽의 발달이라는 묘제에서 찾은 바 있다. 齋藤忠, 「考古學より見た新羅文化の特質」, 『新羅文化論攷』(吉川弘文館, 1973), pp. 317~330.

지에 대한 검토는 고신라 금속공예 기법으로 등장하는 누금법의 출현배경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적석목곽분은 강력한 고대국가의 출현인 김씨세습 왕조의 성립을 바탕으로 하여 고신라 전성기의 왕과 왕족의 무덤으로 200여년간 조영되었다는 사실은 학계의 통설이다.<sup>46)</sup> 그러나 적석목곽분의 상한연대를 비롯하여 편년과 기원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서 여러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학설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한지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적석목곽분의 기원문제를 단서로 삼아서 누금법의 출현 배경을 검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적석목곽분은 재래의 묘제로부터 계승, 발전한 것이 아니라 외래적인 영향하에서 조영된 새로운 묘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토광목곽묘 시대였던 영남지방 가운데 유독 경주에서만 특이한 구조의 묘제가 출현한 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토광묘에서 출토되지 않았던 금제유물이 적석목곽분에서부터 증대되고, 금제유물의 증가와 함께 누금법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한다. 또한 4세기 이전까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방 일대는 古新羅와 伽倻의 구별없이 동일한 문화가 존재하였으나, 4세기 후반 金氏王權이 들어서면서부터 경주 일원만이 변화하여서 5·6세기경부터 고신라와 가야의 문화형태가 갈라지게 되는 현상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sup>48)</sup>

그런데, 적석목곽분이 自生發展이 아닌 外來定着이라고 할 때, 스키타이 묘제와 연결시킨 시베리아(北方) 기원설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적석목곽분과 쿠르간과의 구조적 일치성

46) 韓炳三, 「新羅古墳의 樣式과 編年」, 『古墳美術』, 韓國의 美 22 (中央日報·季刊美術, 1985), pp. 168~173; 李基東, 「新羅의 成立과 變遷」, 『韓國古代史論』 4, 한길사역사강좌 12 (한길사, 1986), pp. 86~88.

47) 신라 이외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구조의 묘제가 반도의 동남부에 자리잡기까지 어떠한 중간 경로가 있었느냐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前時代나 혹은 문화 접촉지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차용하였거나 자체 발전의 문제로 보는 학설과 他地 起源과 그에 따른 전파이동 결과로 보는 학설로 집약된다. 전자는 낙랑군시대의 목곽과 적석식 지석묘에서 온 것(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朝鮮總督府, 1932), pp. 264~268)이라는 주장 이래 支石墓와 土壙木槨墓와의 결합으로 보는 수정안(박진욱, 「신라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4, 1965); 金基雄, 「新羅古墳의 編年에 關하여-積石木槨墳의 內部構造를 中心으로」, 『漢坡李相玉博士回甲記念論文集』 (교문사, 1970), pp. 97~108;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9), pp. 169~220)과 고구려 적석총과 연결시킨 학설(姜仁求, 「新羅 積石封土墳의 構造와 系統」, 『韓國史論』 7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1), pp. 1~68; 崔鐘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對한 약간의 考察」, 『釜山大學校 史學會』, 1984), pp. 8~75) 등이 있다. 후자는 積石木槨墳의 木槨, 積石, 圓形 護石과 圓形 高大封土라는 기본구조를 한 세트라 하여 볼 때, 시베리아의 쿠르간(Kurgan)과 동일하므로 이는 스키타이인들이 흑해연안에서부터 초원지대를 통하여 알타이산맥 일대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퍼뜨린 木槨墳文化의 하나라는 시베리아(北方)기원설이다.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pp. 381~415; 李種宣,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品階와 編年」, 『韓國考古學報』 2호 (한국고고학회, 1996), pp. 7~50].

48) 九政洞古墳으로 대표되는 토광목곽묘는 적석목곽분으로 전승되지 않고 가야고분으로 계승되었으며, 4세기 후반부터 신라와 가야는 묘제의 차이와 함께 문화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韓炳三, 「九政洞古墳群을 통해본 伽倻文化-考古學을 통해본 文化交流史-」, 『思想과 政策』 21-1 (京鄉新聞社, 1984), p. 163.

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馬具類와 黃金遺物의 증대라는 상호 유사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하여 고신라 적석목곽분을 스키타이 목곽분문화의 마지막 단계로 본다면, 적석목곽분에서부터 시작되는 황금미술의 발달과 누금법 또한 스키타이 고분문화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sup>49)</sup>

耳飾의 起源에 관한 고찰도 누금법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존하는 누금법의 유물은 종류면에서 볼 때 이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식의 형식에 있어서 太環과 細環의 主環部에 中間飾과 垂下飾이 두루 구비된 이식의 表面裝飾技法으로 누금법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이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식의 기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나라 耳璫과의 관련이 제시되어 왔다.<sup>50)</sup> 그러나 이당은 모두 瑪瑙·琉璃·玉製이며, 주환의 형태도 고리가 아니라 북모양이나 실패형이어서 고신라 이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당을 패용하는 풍습은 남방의 蠻族으로부터 유입된 것임에 반해<sup>51)</sup> 고리로 된 주환부에 중간식과 수하식으로 구성된 귀걸이의 패용은 遊牧民族의 풍습이므로 고신라 이식은 스키타이 장신구와 더욱 관련이 깊다.<sup>52)</sup>

유라시아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스키타이인들은 金製裝身具를 즐겨 착용하였고, 특히 샤만적 의미를 지닌 일종의 종교적 장신구로서 귀걸이를 애용하였다. 이는 이동을 하는 유목민들은 손쉽게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소형의 장식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런 장신구를 통해서 그들의 富와 美意識, 宗教的 祈願 등을 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sup>53)</sup>

스키타이의 금제귀걸이는 기원전 4세기 중엽경 원반과 많은 수식이 달린 보트형(초생달형)으로 전형화된 그리스 금제귀걸이(圖 5)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쿨오바(Kul-Oba)출토 귀걸이(圖 24)를 비롯하여 다수의 예가 있다. 이들 귀걸이는 일반적으로 식물문로 장식된 원반

49) 이같은 가설에는 최근에 제시된 또 다른 적석목곽분의 시베리아 기원설에서 시사받은 바가 크다. 이는 경주의 적석목곽분과 시베리아의 파지리크 고분과의 구조 - 封土, 積石, 護石, 木槨構造 - 의 일치성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적석목곽분의 기원을 시베리아와 연결시킨 학설이다. 즉, 시베리아와 고신라 양자간에 보이는 시간적, 공간적 공백은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광범한 조사가 진행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 아래 고신라의 적석목곽분이 시베리아로부터 오르도스를 경유하여 평안도와 경상도로 이어지는 문화이동 루트를 통하여 전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李鍾宣,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品階와 編年」, 『韓國考古學報』 2號 (韓國考古學會, 1996), pp. 7~50.

50)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p. 235.

51) 『世界美術全集』 13卷: 中國(秦·漢) (角川書店), p. 207, 도 132 설명 參照.

52) 主環部에 中間飾과 垂下飾으로 구성된 귀걸이가 중국의 이당과 무관하다는 필자의 견해는 다음의 논문에도 보여진다. 遼寧省 西豐縣 西盆溝墓群出土 金製細環耳飾이나 遼寧省 儀縣 保安寺古墓出土 金製細環耳飾을 예로 들어 금제이식을 착용하는 풍습은 한족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北方遊牧民族의 풍습과 관련있다고 한다. 周旻美,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4), p. 90; 『美術史學研究』 211 (韓國美術史學研究會, 1996), p. 24.

53)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 p. 408; 江上波夫, 『騎馬民族國家』 (中央公論社, 1976), p. 39.

과 초생달 모양에 사슬로 조개껍질 모양의 수식을 매단 형태이다. 이는 고신라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이식과 주환부의 차이는 있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주환에 수하부가 첨가된 형식은 동일하다. 더구나 이러한 형태의 귀걸이에는 예외없이 누금법이 장식되었다.

그러므로 고신라 이식의 기원은 형태와 장식기법면에서 볼 때 중국의 이당보다는 그리스의 영향으로 전형화된 스키타이 귀걸이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고신라 적석목곽분과 스키타이 묘제의 강한 관련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귀걸이를 비롯한 스키타이의 장신구는 스키타이 황금미술과 함께 발달하였으며, 강한 이동성을 지닌 유목민족의 특성 때문에 주변으로 전파되어 북방 유라시아 전역에서 출토 예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알타이 바릭숙(Baryk-Sook) 출토 금제귀걸이(圖 10)와 匈奴古墳인 阿魯柴登遺蹟에서 출토된 금제귀걸이(圖 11)는 고신라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식과 형태와 표면장식기법이 매우 유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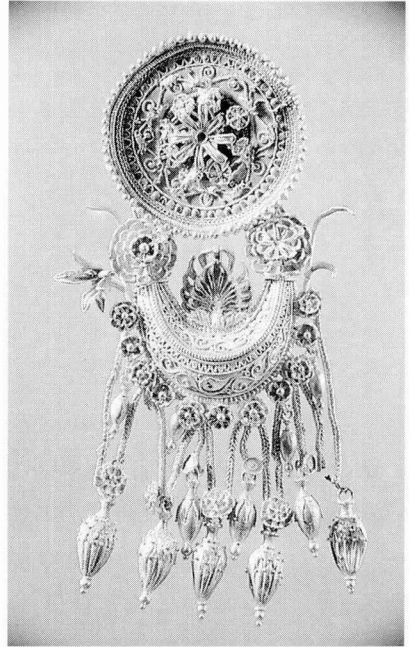


圖 24. 쿨오바(Kul-Oba)出土 귀걸이, 全長: 9.5cm, 4C B.C., 에르미타주미술관

고신라 누금법과 상호관련이 깊은 적석목곽분과 이식의 기원 문제를 단서로 할 때, 고신라의 누금법은 알타이-오르도스계 금공기술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알타이-오르도스로계 금공기술이 어떠한 경로로 고신라에 전래되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현 단계에서 전래경로를 단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나, 알타이 → 오르도스 →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알타이 →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지도>.



<지도> 古新羅 鏤金細工技法의 傳來經路

전자는 알타이까지 전래된 스키타이 금공기술이 오르도스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오르도스 문화요소가 중국의 한대에서 남북조시대까지 잔존하고 이것이 청동기시대 이래 문화의 일반적인 유입루트<sup>54)</sup>인 요동반도 → 한반도 중서부 해안지대를 거쳐 들어왔을 가능성을 상정한 경로이다. 이는 오르도스 문화가 중국의 전국시대와 한대의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다시 한반도를 지나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문화사적 주장<sup>55)</sup>을 통해서도 설득력이 더해진다. 또한 한반도 내에서의 정치적, 문화적 선진세력으로서 한국고대사에 끼친 樂浪의 영향<sup>56)</sup>이나, 낙랑의 고토에서 출토한 金製帶鉤와 같은 누금법의 유물로도 가능성이 제시되는 경로이다.<sup>57)</sup>

후자는 알타이 산록에서 스텝루트를 따라 韓半島 北部地域으로 동진하여 高句麗 領域圈을 지나 고신라로 남하하는 경로이다. 이는 삼국 중에서 특이한 구조의 고분과 여기서 출토된 로마 유리 계열의 琉璃容器와 金冠, 누금법으로 장식된 장신구 등과 같은 고신라만의 이질적인 문화요소를 지닌 유물의 유입 경로로 제시되어 왔다.<sup>58)</sup> 이는 고신라 지배계층 자체가 강력한 문화를 지니고 남하한 새로운 유이민 집단이라는 견해<sup>59)</sup>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흉노가 분열하여 북흉노의 일부가 동쪽으로 오면서 스키토-흉노문화를 형성하고 그 세력이 한반도 동해안 루트를 타고서 경주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sup>60)</sup>에서 제시되는 경로이기도 하다.

54) 이 경로에 대한 가능성은 한국 고대유물에 보이는 북방문화요소를 논한 李健茂의 논문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李健茂, 「韓國 古代遺物을 통해 본 北方文化要素」, 『스키타이 黃金』(國立中央博物館), 1991, p. 307

55) 江上波夫, 위의 책(1976), p. 39.

56) 孫炳憲, 「樂浪古墳의 被葬者」, 『한국고고학보』 17·18 (한국고고학연구회, 1985), pp. 3~4.

57) 고신라의 누금법은 낙랑유민의 남하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李蘭英,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 213.

58) 由水常雄은 고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琉璃器를 고찰하면서 삼국 중에서 고신라는 스텝루트를 따라 유라시아 遊牧文化, 그리스·로마 문화권과 접촉하여 이들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由水常雄, 「古新羅古墳出土의 로-만 클래스에 대해서」, 『朝鮮學報』 80輯 (天理大 朝鮮學會, 1976), pp. 37~71; 「出土遺物から見た新羅と日本」, 『八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平凡社, 1980), pp. 122~155] 또한 李殷昌도 아프카니스탄 시마르간에서 출토된 황금유물과 신라 금속공예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논문(李殷昌, 「新羅 金屬工藝의 源流的인 中央亞細亞 古代文化」, 『韓國學報』 26輯 (一志社, 1982), pp. 133~167)에서 고신라만의 이질적인 문화요소는 스텝루트를 따라 전래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59) 고신라의 모체인 斯盧國은 土壤木棺墓를 가지고 내려온 古朝鮮系 유민이 세운 정치적 사회이며,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이르면 새로운 유이민 세력에 의해 큰 변동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전환의 계기에는 북에서부터 남하한 새로운 이주민 집단으로부터의 문화적 충격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韓炳三의 주장에 의하면 積石木槨墳의 형식과 출토유물 중에서 고구려 판도박 서쪽의 북방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묘제를 신라땅에 도입한 金氏王權은 북방에서 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韓炳三, 「九政洞古墳群을 통해 본 伽倻文化-考古學을 통해 본 文化交流史」, 『思想과 政策』 12-1 (京郷新聞社, 1984-겨울호), p. 163] 金秉模도 역사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辰韓人은 수많은 고인들을 남겨놓은 선사시대부터 살고있던 토착농경인, 기원전 3세기경 秦나라에서 이민해온 사람들, 기원전 2세기 중에 이주해온 고조선 유민, 37년 낙랑에서 투항해온 5천명의 유민 등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었으며, 지배계층은 북방유목민 출신들로 토착인을 지배하였다고 한다. [김병모, 『금관의 비밀』(푸른역사, 1998), pp. 152~155]

60) 최근에는 銅馥의 출토를 근거로 하여 북흉노가 서천하는 기원후 91년부터 약 200년동안 북흉노가 동진하였다는 진보일한 주장도 제시되었다. 권영필, 「신라 공예의 대외교섭」(한국미술사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1998·9).

이들 두 경로는 앞으로의 考古學的 발굴과 古新羅 美術에 대한 연구의 성과에 따라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전래되었던지간에 고신라 누금법은 고신라 미술에 내재된 중국에서 미술의 영향을 예시하는 한 예라는 점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고신라 누금법의 쇠퇴는 전래와 마찬가지로 고신라 묘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이 공존하던 시기에 극전성기를 맞이한 누금법은 적석목곽분이 소멸해 가던 시기부터 차츰 쇠퇴기에 접어든다.<sup>61)</sup> 고신라 묘제가 橫穴式石室墳으로 바뀌면서 부장유물인 금제장신구의 수적 감소가 있었고, 장신구의 감소는 자연히 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사용되었던 누금법의 쇠퇴를 가져왔으리라 추측된다.

묘제의 변화, 장신구의 제작감소, 누금법의 쇠퇴라는 일련의 변화에는 智證王 3년(503년)에 단행된 殉葬禁止法<sup>62)</sup>과 法興王 27년의 佛教公認(528년)과 같은 의식개혁<sup>63)</sup>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고신라 왕릉은 법흥왕부터 경주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하였으며<sup>64)</sup> 간단한 구조의 횡혈식석실분으로 전환되었다. 고분 구조의 간소화와 박장풍습은 부장유물의 축소와 장신구의 수적 감소를 가져왔고, 그리하여 누금법은 장식기법으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또한 중국화의 일환으로 단행된 당의 복식제도의 채택<sup>65)</sup>으로 인한 고유풍습의 소멸과 사치를 금하는 興德王 9년(834)의 禁制令<sup>66)</sup>도 금제장신구의 감소와 누금법의 소멸을 가져왔으리라 여겨진다.<sup>67)</sup>

61) 누금법의 하한연대는 皇龍寺 木塔 心礎石出土 金銅大環耳飾의 제작년대(皇龍寺木塔이 창건된 善德王 14년: 645년)를 기준으로 7세기중엽경으로 잡고있다.

62) 지증왕은 국왕의 무덤에 남녀 각각 다섯명씩 순장하던 이전의 풍습을 금하였는데, 이는 재래의 厚葬風習에서 薄葬風習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三年 春三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63) 불교와 함께 전래한 火葬法(다비식)의 성행은 많은 인력과 물자가 소요되는 적석목곽분과 후장풍습에서 간소화된 신묘제인 횡혈식석실분과 박장풍습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장풍습은 통일이후에는 王室로부터 貴族, 高僧에 이르기까지 유폐처리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형태의 장례법으로 발전하였다.

64) 고신라 고분은 智證王을 끝으로 경주평지를 떠나 주변의 산록으로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崔秉鉉, 『新羅古墳研究』(一志社, 1992), pp. 372~373 [原出處]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二十七年 春七月, 王薨, 諡曰法興, 葬於哀公寺北峰 『三國遺事』卷第一, 王歷 第一, 第二十三, 法興王 …法興諡, 諡始乎此, 甲午立, 理二十六年, 陵在哀公寺北…

65) 『三國史記』卷第三十三, 雜志第二, 色服條 …至眞德王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衣 太宗皇帝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文武王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其後 衣冠同於中國…

66) 신분에 따른 色服·車騎·器用·屋舍에 관한 금지령이다. 『三國史記』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車騎·器用·屋舍條

67) 그런데 누금법 유물의 감소에는 완형분의 不在에 기인한 현존유물의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금속공예품은 사찰소장품이나 불상의 부장품으로 전래되는 예가 많으므로 누금법으로 장식된 유물의 출토 예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희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하여도 결국, 고신라 후반 이후 급격히 감소된 누금법의 유물은 주로 금제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사용되던 누금법의 쇠퇴의 결과이며, 이같은 기법의 쇠퇴에는 6세기 전반경 이래의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장례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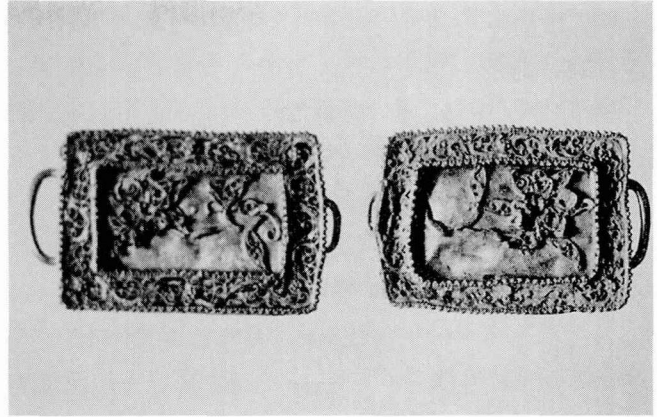


圖 26. 傳開城出土 金製裝飾金具(2개)(全長: 3.8cm · 3.6cm),  
國立中央博物館

圖 25. 感恩寺東三層石塔出土 金製風磬(1쌍),  
全長: 0.7cm, 國立文化財研究所

고신라 후반이후 누금법은 量的인 면에서는 쇠퇴를 보이나,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는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다. 7세기 후반 조영의 感恩寺東三層石塔에서 출토된 金製風磬(圖 25)은 누금법이 불교공예의 장식으로까지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의 장신구에도 가는 금사를 활용하여 보다 복잡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예가 현존한다(圖 26). 이같은 점은 중국의 누금법이 漢代 후반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六朝時代에 성행하였으며 唐에 이르기까지 장신구와 생활용기의 장식기법으로 명맥을 유지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 3. 鑲金法과 中國以西 美術<sup>68)</sup>과의 관계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古新羅 金屬工藝의 鑲金細工技法은 한반도 자생의 금공기술이 아니라 외래적 기법이며, 메소포타미아에 기원을 둔 금속공예 기술이 스키타이·알타이-오르도스系 유목문화의 영향으로 고신라로 유입된 것이다. 이러한 서방 유래의 누금법은 고신라 미술에 나타난 中國以西美術의 영향<sup>69)</sup>이라는 성격과 동일한 맥락이다.

68)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서 西域美術, 北方美術, 중앙아시아미술로 일컫고 있다. 본고에서는 中國美術과 구별하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서 中國以西美術이라 지칭함을 밝힌다.

69) 고신라 미술에서 중국에서 미술의 영향은 청동기시대 오르도스 문화의 東傳을 비롯하여 '北方美術'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北方'의 개념은 북중국의 오르도스 지방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중앙아시아

고신라 미술품 중에서 중국이서미술과의 관계를 예시하는 유물에는 樣式과 技術 습득과정을 통하여 재창조된 경우와 직접 原物이 유입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누금법을 비롯한 대부분이 前者에 속한다. 그런데 누금법이 구사된 대표적인 유물들이 부장된 고분들에서는 中國以西地域과 연결되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동반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누금법의 유물과 금관, 유리용기의 동반출토를 통해 증명된다.

고신라 금관의 기본형태는 금관을 오려 둥근 테를 만든 臺輪과 전면의 3단 또는 4단의 樹枝(山字·出字)形과 측면의 鹿角形 장식으로 구성되고, 硬玉製曲玉이나 瓔珞으로 장식된다. 이들 금관의 산자와 녹각형의 기본적인 형태는 중국문화가 아닌 시베리아 유목문화와 관련있음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sup>70)</sup> 그리하여 고신라 금관은 사실적인 수목 두 그루와 사슴 세 마리를 배치한 남러시아 노브체르카스크(Novocherkask) 호흐라치(Khokhlach) 무덤에서 출토한 사르마티아 금제관<sup>71)</sup>과 관련성이 있으며, 녹각과 조우 장식이 달린 시베리아 일대의 샤만관에 직접적인 조형의 원류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고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용기들도 고신라 미술에 끼친 중국이서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암시하는 유물로, 직접 原物이 전래된 경우에 해당한다. 月城路 가-13號墳을 비롯하여 皇南大塚南墳·北墳, 金冠塚, 瑞鳳塚, 金鈴塚, 天馬塚 등 고신라의 대표적인 고분에서 출토된 19점의 琉璃容器는 유리의 成分 뿐만 아니라 器形과 製作技法 등에서 로마유리 계통에 속하기 때문이다.<sup>72)</sup> 고신라 누금법도 서아시아에서부터 동지중해 연안, 그리스-로마, 흑해연안으로, 다시 초

초원지대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한국 고대유물에 나타난 북방문화 요소는 오르도스식 銅劍이나, 劍把頭飾, 虎形·馬形帶鉤, 角杯, 陶製燈蓋, 樹枝鹿角形冠, 鈔帶, 鏤金과 嵌玉 등 유물의 形態와 器形, 技法面에서 논의되고 있다. [李健茂, 「韓國古代遺物을 통해본 北方文化要素」, 『스키타이황금』(國立中央博物館 앞논문, 1991), pp. 302~307] 또한 고대 한국과 서역의 미술을 상호 비교하면서 고신라 미술과 북방미술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거나[金元龍, 「古代 韓國과 西域」, 『美術資料』 34(國立中央博物館, 1984), pp. 1~25] 북방미술과 관련있는 자료를 스키타이계와 사산계로 분류하여 그 속에서 신라인의 미의식을 찾아낸 연구도 이미 이루어졌다. [權寧弼, 「新羅人의 美意識-北方美術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新羅藝術의 新研究』, 新羅文化際學術發表論文集, 제6집(신라문화선양회, 1985), pp. 233~268; 『실크로드 미술』(悅話堂, 1997), pp. 181~199]

70) 金元龍, 「新羅 金冠의 系統」, 『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東國大學校出版部, 1965), pp. 292~293.

71) 國立中央博物館(編), 『스키타이 黃金』(國立中央博物館, 1991), 圖 203 參照.

72) 고신라 유리용기는 납(PbO)유리 계통의 古代 中國琉璃와는 다른 알칼리 성분으로서 로마유리 계통에 속한다. 또한 유리용기의 표면에 유리끈(紐)으로 과상대나 망상문, 반점 등이 붙여 장식하는 것은(皇南大塚南墳, 金冠塚, 瑞鳳塚, 金鈴塚出土 琉璃容器) 지중해 연안에서 5세기 이전에 제작된 로마유리의 전형적인 기법이다. 더구나 봉수형유리병(皇南大塚南墳出土 鳳首形琉璃瓶)의 기형은 그리스 오이노코에(Oinochoe)에 기원을 두고있다. 고신라 유리용기와 유사한 유리제품들은 南獨逸의 쾰른지방과 동구 체코, 남러시아의 카자흐와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출토되며, 중국 遼寧省 北票 馮素弗墓, 河北省 景縣 封魔奴墓, 陝西省 西安 何家村 등 북중국에서도 출토 예가 있다. 由水常雄, 앞논문, (1976), pp. 37~71; 「朝鮮의 古代ガラス」, 『世界ガラス美術全集』 第4卷: 中國·朝鮮(九龍堂, 1992.)

원지대를 경유하여 한반도로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고신라 유리용기가 전개된 것과 동일한 문화현상이라 여겨진다. 다만 누금법은 제품의 전래인 유리용기와 달리 금공기술의 전래라는 차이점이 있다.

고신라 금관과 유리용기가 출토된 고분에서는 예외없이 누금법으로 장식된 금제장신구가 출토되고 있으며, 이들 고분은 고신라 누금법의 발전과정을 예시하는 대표적인 고분이다 <表 4>. 그러므로 金冠, 琉璃容器, 鏤金法の 金製裝身具를 한 세트로 하여 고신라 미술에 내재된 중국 이서미술의 영향을 강조할 수 있다. 누금법이 구사된 대표적인 유물들이 부장된 고분들에서 금

<表 4> 古新羅 古墳出土 鏤金細工技法의 遺物과 同伴遺物과의 關係

出土 古墳名	古墳出土 金冠	古墳出土 琉璃容器		鏤金遺物 出土狀況
	金冠의 形態	琉璃容器	個 數	
월성로 가-13호		琉璃杯	2점분 (1점만 복원)	1점 太環耳飾
皇南大塚 南墳		鳳首形琉璃瓶	1개	5점 太環耳飾 細環耳飾 指環 金鈴
		網目文琉璃杯	1개	
		淡綠色杯	2개	
		藍色瑠璃碗	1개	
皇南大塚 北墳	3山形立飾+鹿角形立飾 +硬玉製曲玉+金製瓔珞	圓形刻-트文碗	1개	4점 太環耳飾 細環耳飾 腕釧
		褐色木理文瑠璃高足杯	1개	
		紺青色瑠璃杯	2개 (1개 파손)	
金冠塚	"	과상문瑠璃高足杯	1개	2점 太環耳飾
		꺾대문瑠璃高足杯	1개	
瑞鳳塚	3山形立飾+鹿角形立飾+硬玉 製曲玉+金製瓔珞+內冠裝飾	帶出文碗	1개	3점 細環耳飾 指環
		紺色碗	1개	
		波狀文(網目文)瑠璃杯	1개	
天馬塚	4山形立飾+鹿角形立飾 +硬玉製曲玉+金製瓔珞	淡綠色瑠璃高足杯	1개	2점 細環耳飾
		龜甲文瑠璃杯	1개	
金鈴塚	4山形立飾+鹿角形立飾 +金製瓔珞	斑點文瑠璃碗	2개	2점 細環耳飾 指環 腕釧 金鈴

관·유리용기와 같은 중국이서 지역의 미술과 연결되는 유물이 함께 출토된다는 사실은 그 당시 新羅人들의 의식 속에 중국이서미술에의 指向性이 내재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그러한 유물들은 동일한 문화적 공감대 속에서 이룩된 산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V. 맺음말

鏤金細工技法이란 金絲로 대표되는 金屬線(絲)과 金粒으로 대표되는 금속 알갱이(粒)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붙여서 문양을 장식하는 금속공예의 장식(세공)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누금법은 금사와 금립의 제작, 땀납(Soldering)에 의한 접착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류의 감장까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법이다. 또한 누금법은 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 발생하여 동지중해연안, 이집트, 지중해이서의 그리스, 에트루리아까지, 다시 동으로는 스키타이, 알타이-오르도스지역, 중국,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파된 동서 금속공예의 보편적인 장식기법이다.

한국 금속공예기법으로서의 누금법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으나, 현존유물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고신라 금속공예에서 가장 성행하였다. 고신라 누금법은 積石木槨墳에서부터 출토되는 금제유물의 표면장식기법으로 이용되었음이 특징이다.

장식기법의 특징은 금사와 금립장식을 함께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간혹 嵌玉까지 첨가되기도 한다. 누금법의 발전과정은 금사 중심에서 차츰 금립 중심으로 옮겨간다. 皇南大塚에서 시작하여 金鈴塚에 이르면 금사장식에서 금립장식으로 전환되어, 鷄林路14號墳과 慶州 普門洞 夫婦塚 등에 이르면 금립장식이 발전하여 누금법은 전성기를 맞이한다. 皇南大塚 → 金鈴塚 → 鷄林路14號墳 → 慶州 普門洞 夫婦塚으로 이어지는 누금법의 편년은 고신라 고분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한다.

고신라 누금법은 금제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성행하였으며, 금제장신구 중에서는 耳飾의 주환부와 중간식, 수하식의 표면장식기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함이 또 다른 특징이다. 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누금법이 사용된 점은 東·西 金屬工藝에 적용된 누금법의 보편적인 특징이나 이식의 장식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고신라만의 특수성이다.

고신라 누금법은 적석목곽분이라는 묘제와 금제장신구인 이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서 알타이-오르도스까지 전래된 스키타이 금공기술이 스키타이 묘제나 유목민의 장신구와 함께 한반도로 전래되었으리라 추정해보았다. 이러한 추정은 고신라 적석목곽분과 이식의 기원을 스키타이 쿠르간과 그리스 귀걸이의 영향을 받아 전형화한 스키타이 귀걸이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적석목곽분과 쿠르간과의 구조의 유사성이나 누금법으로 장식된 고신라 이식과 유사한 형태의 이식이 알타이와 오르도스 지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추정은 누금

법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는 동반유물-시베리아 유목문화와 관련이 있는 樹枝形과 鹿角型으로 구성된 金冠, 스텝루트로 전래된 로마유리 계통의 琉璃容器-들을 한 세트로 하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알타이까지 전래된 스키타이 금공기술이 고신라까지 어떠한 경로를 경유하였는지는 현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쉽지않다. 오르도스를 경유하여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 전래되었거나 또는 알타이 산록에서 스텝루트를 따라 韓半島 北部地域으로 동진하여 高句麗 領域圈을 지나 고신라로 남하하는 경로가 상정될 뿐이다. 그러나 고신라 누금법은 고신라 미술에 내재된 중국이서 미술의 영향을 예시하는 한 예라는 점은 분명하다.

고신라 누금법은 고신라 말기부터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른 묘제의 전환과 이에 수반된 박장풍습으로 차츰 쇠퇴하게 된다. 묘제의 변화는 부장품의 축소를 가져왔고, 자연히 장신구의 장식기법으로 성행한 누금법은 금속공예의 기법으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신라 누금법은 고신라 묘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을 사실을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첫째, 누금세공기법이란 스키타이·알타이-오르도스계 유목문화와 함께 한반도에 전래된 외래적인 금속공예 기법이다. 그러므로 누금법은 신라 미술에 내재된 中國以西 美術의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고신라 미술과 중국이서 미술과의 강한 親緣性은 중국문화의 강한 영향과 唐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이서의 문화를 받아들인 統一新羅의 미술과 구별되는 古新羅 미술의 特殊性이기도 하다.

둘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에트루리아, 스키타이 등 다른 문명의 발생국들과 마찬가지로 고신라 금속공예 기법으로 누금법이 성행하였음은 고신라의 경제력과 미술의 발달상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는 풍부한 금의 생산과 금을 다루는 기술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신라 누금법의 존재는 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고신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ABSTRACT)

## The Filigree Technique in Silla Metal Craft

Lee, Young-hee

The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origin of the filigree technique used in metal craft works of Silla dynasty. The filigree technique was first used in Mesopotamia around 2600 BC. It was transmitted to Syria and Palestine in the eastern seashore of the Mediterranean around 2000 BC, and to Egypt around 1800 BC. Afterwards, it reached the western part of the Mediterranean and highly developed in Greece and Etruria. The European filigree technique influenced Scythian gold-works through the colonizing Greeks. The filigree technique was extended in the East as far as the eastern part of Siberia, and appeared in China during the Han dynasty.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the filigree technique developed at a highly refined level, particularly in Silla. This technique was used in Silla mostly for surface decoration of ear ornaments. It gradually developed from "filigree" (the golden strands decoration) to "granulation" (golden grains decoration). In the golden strands technique, beaded wire was more commonly used than plain wire. The beaded wire had gradually changed into a globular form that resembles golden grains. This seems to be intended to achieve the effect of the golden grains technique.

The golden grains technique developed from the stage of decorating golden grains outlined with golden strands to the stage of decorating golden grains without golden strand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urface decoration of ear ornaments such as golden small-ball earrings from Tomb no. 14 of Kyerim Road and golden large-ball earrings from Pubuch'ong (Tomb of Husband and Wife). Especially, golden strands 0.7-0.8mm thick and golden grains 0.67mm thick of golden large-ball earrings from Pubuch'ong show the highly developed technique.

The development of the filigree technique in Silla is traced in a sequence from Hwangnam-daech'ong (Great tomb of Hwangnam) to Kumny ngch'ong (Tomb of golden bell), then to Tomb no.14 of Kyerim Road and Pubuch'ong. This chronicle of the filigree technique shows the same locus of the tombs of Silla.

The filigree technique gradually declined as the funerary custom became simple and frugal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It lost its importance in metal craft due to the simplification of the burial structure and the reduction of burial goods.

The filigree technique was introduced in Silla as part of the nomadic culture of the Altai and Ordos regions. This supposition is supported by the examination of the origin of the wood-lined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and ear ornaments closely related to Silla filigree technique. The structural resemblance with Scythian Kurgans indicates that the wood-lined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originated in Siberia and that ear ornaments were also based on those of nomadic tribes.

The filigree technique that originated in ancient Orient seems to have transmitted to Altai in the Central Asia. It was then transmitted to Silla passing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via the Ordos region southwest of Mongolia.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route toward Silla via Koguryo territory after the movement towards the east from the foot of Altai mountains.

In conclusion, the filigree technique is an example of Central Asian influence in the art of Silla. The affinity between Silla and Central Asian arts is proved by golden crowns and glassware excavated as well as the filigree technique. The filigree technique of Silla is important not only as a technique in gold-work but also provides a clue for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Silla art.